

암울한 ‘헬조선’… 흡수저의 처절한 씹쓸함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장건재 감독 ‘한국이 싫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 영화 ‘한국이 싫어서’의 여주인공 계나(배우 고아성)가 이 말을 들으면 한바탕 신랄하게 쏘아 붙였을 것 같다. 계나의 일상은 고통스러운 출근전쟁으로 시작한다. 해가 뜨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인천의 마을버스를 타고 열두 정거장을 경유한 후에 지하철 1호선을 탄다. 신도림역에서 다시 2호선으로 환승 후 강남역까지 간다. 점심 메뉴는 부서장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원리원칙을 따르면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회사 분위기에 표류할 뿐이다.

계나는 자신이 톰슨가젤 같다 생각한다. 표범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는 가젤의 무리에서 꼭 옆으로 튀어 나오는 한 마리가 있는데, 결국은 표범의 표적이 되고 만다. 그 튀는 가젤이 경쟁력 없는 자신과 같다 생각하는 것이다. 집안 형편은 남자친구 지명(배우 김우겸)의 가족을 만나고 나서 더욱 초라해지고 비참하다. 고단한 현실에 결혼과 출산을 강요받는 사회적 압박 또한 계나에게는 무의미하다. 퇴근전쟁을 치른 후 귀가하면 재건축을 앞둔 집은 고장난 보일러를



장건재 감독 ‘한국이 싫어서’.

(주)엔케이콘텐츠 제공

고치지 않아 출기 짝이 없다. 이래저래 계나는 출고단한 한국이 싫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자신이 처한 환경이 싫은 것이다. 그래서 한국 밖으로, 햇볕따사로온 뉴질랜드로 떠날 생각을 한다.

언제부터 한국인에게는 눈에 보인 않지만 기준이란 것이 생겨났을까? 30세 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하고 결혼 전에 1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야 하며,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해야 하는 등등이 그러하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현대인으로서 ‘평균’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안정적으로 속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 영화에서처럼 ‘경쟁력 없는 인간’으로 느껴진다. 이젠 더 큰 일이다. 인생에 모범답안이 어디 있겠는가? 기준에서 벗어난 경쟁력 없는 인간이라 생각하면서 슬프고 불행하고 허둥댈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계나가 뉴질랜드에서 만난 인도네시아 친구의 시각이 있었다.

“너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종에 대한 계급이 있더라. 맨 위에 뉴질랜드 백인, 그 아래 일본인과 한국인, 그 다음 계층은 중국인, 맨 아래에 동남아인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곳 뉴질랜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그들에게 분류란 영어 하는 아시아 인과 영어 못하는 아시아 인으로 구별할 뿐이야.” 그런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자본주의적 계급 의식이 어디에서든 무의식적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가? ‘금수저 vs 흡수저’란 신조어가 만들어진 건 우리 사회의 깊은 문제를 들킨 기분이었다. 계나의 남자친구가 금수저로서 어려움 없이 사회인의 대열에 흡수될 때 계나는 흡수저로서의 처절한 씹쓸함을 맛보며 살았다면, 떠나고 싶었을 것이다.

계나가 뉴질랜드에서 힘든 일바 인생을 살지만 한국의 직장인이었을 적과는 표정이다르다. 그녀는 그저 “참고 배고프지만 않으면” 행복하다고 말한다. 주

위를 싫어하는 남극의 펭귄이 필사적으로 남극을 탈출하듯 그녀는 계급의식으로 옥죄는 한국 사회의 냉랭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뉴질랜드행을 택한 것이다. 뉴질랜드라 해서 천국은 아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리저리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영화에 이민 가구인 한인 일가족이 죽는 일은 불안증이 심해진 남편으로 인한 사건임을 유추하게 한다. 그럼에도 계나가 다시 뉴질랜드로 떠나는 데에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다.

영화의 원작은 장강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2015)다. 당시로서는 한국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정치적 환경이 있었다. 한국을 ‘헬조선’이라는 나라로 일컫는 풍자와 자조 섞인 이야기가 유행하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촉발된 자발적 촛불시위를 앞둔 암울한 시대였다. 장강명 작가의 날카롭고 경쾌한 톤이 2030 청춘의 아픔을 톡톡 튀듯 묘사, 그들의 이야기를 경유하면 한국 사회가 보이게끔 장치한 소설이다. 장건재 감독은 2016년부터 시나리오를 만들기 시작하여 35고에 이르기까지 영화로 생산하질 못했다. 그러는 동안 원작과의 거리가 생겨났다. 원작만큼 경쾌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이민자들이 갖는 결이 다르고 유학생들이 갖는 온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감독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멀어진 꿈과 희망을 쫓는 2030 청춘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에피소드를 원작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공감할 수 있는 영화적 상황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감독은 원작이 갖는 사회적 고찰보다는 개인의 정체성 찾기에 더 주력해서 계나의 마지막 선택을 다르게, 열린 결말로 이끌어냈다.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현안 해결을 위한 ‘100일 간의 대장정’



취재수첩

정성현

취재1부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가장 지연된 개원식’, ‘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

제22대 국회 정기회가 2일 오명을 뒤집어 쓴 채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간 국회는 5월 30일 임기 시작 후 채상

병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여야 대립으로 개원식을 차일피일 미뤘었다. 직전 기록은 임기 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21대 국회)이다.

대통령의 개원 연설도 무산됐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100일간의 국회 운영 등에 대한 연설을 진행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정상화를 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여야는 임기 시작 후 3개월 동안 정쟁만 일삼아 왔다.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이 가결되는 소득은 있었지만, 공작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그 사이 거대양당의 정당대회 등으로 작은 이슈는 사실상 묻혔다. 대통령이 국회서 화합의 고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물거품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모처럼(전날) 여야 대표 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개원식에) 참석했으면 국민들이 보기에 좋았을텐데 아쉽다”며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진다. 불편하더라도 서로

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지역 의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이들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남 국립대 설립 등 지역현안 해결 뿐만 아니라, 국고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오는 6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열리는 만큼, 지역 의원들의 관심도 뜨겁다. 광주 국회의원 8명은 연석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광주·전남 국회의원 군공항 이전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

아온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다시 한번 정부·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기조다. 국회 기획재정위 안도걸 의원은 본보와 인터뷰에서 “고갈된 내수 부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절실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아주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기회서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제1목표로 삼은 만큼, 국민들에 실망보다 믿음과 힘을 주길 바란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소모적 정쟁 중단’의 매개체로 삼고, 민생에만 집중하는 협치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